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9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소통기획 담당관실	담당자	• 브랜드전략팀장 이상숙 ☎440-3081 • 담당자 최준호 ☎440-308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종이 명함 쓰세요?

- 인천시, 코로나 예방하는 ‘친환경 버블 명함’ 제작 -
- ‘지구의 날’ 기념,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 이벤트 진행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구의 날’을 맞아 코로나를 예방 하는 친환경 명함 I'M BUBBLE 이벤트를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에선, 인천시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지구야 00해’ 댓글과 필수 해시태그(#all_ways_Incheon) 명기해 응모한 사람 중, 70명을 선정해 친환경 버블 명함(1인당 50매)과 비접착식 종이 케이스를 선물한다.

친환경 명함 I'M BUBBLE은 특수 제작한 종이버누 형태로, 버누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 졌다.

인천시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을 앞장서기

위해 인천시장을 비롯한 자원순환 실무자들의 명함도 비누명함으로 교체, 친환경 업무 정책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비누명함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저장하거나 사진을 찍은 뒤 손등을 씻는 데 쓸 수 있는 친환경 명함이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소각 처리 되고 있다”며 “현실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친환경 명함 I’M BUBBLE’은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https://www.instagram.com/incheon_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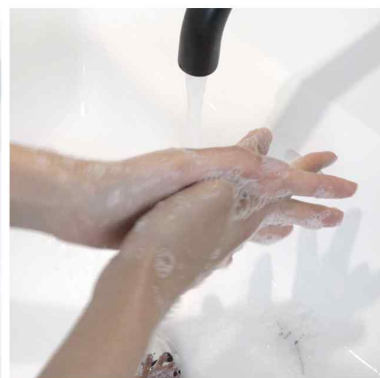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5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친환경 명함 I'M BUBBLE'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며 선보이며 시연하고 있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친환경 명함 I'M BUBBLE'로 손 씻기를 하고 있다.



▲ 실제 사용 모습 (단계 별 이미지)



친환경 명함 I'M BUBBLE 실제 이미지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Tel +82 32-120
E-mail allwaysincheon@korea.kr

I'M BUBBLETM 100% SOY INK
"이명함은 종이 비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비접착식 종이 케이스

